

## 成任神道碑



所在地：汝山邑 内浦里

時代：燕山君 6年(1500年)

撰書篆：洪貴達 撰，安琛書，安琛篆

規模：總高 256cm，身高 160cm，幅 83cm，厚 21.5cm

〈碑文〉

有明朝鮮國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文安成公神道碑銘并序

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同知 經筵事知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洪 貴達 撰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同知春秋館事都摠府副摠管 安 琛 書并篆

公諱任字重卿昌寧縣人也成化甲辰卒年六十四是年十月葬于坡州西面烏里串  
之原越十六年弘治己未夫人許氏卒附葬于公之塋既襄事其孤同知中樞世明書抵  
余倩撰碑文謹按公先係自麗代肇起入我朝世爲鉅卿皇考諱念祖娶海州牧使安從  
約之女生公牧使卽文成公珦五代孫文成有功於斯文配享孔子廟庭夫其內外積慶  
之累而其後宜大公生而骨骼異凡兒七歲從師受章句能通曉文義有同舍兒讀孝經  
公從旁默誌之退而口誦不失一字先公大奇之曰此兒他日必有大過人者十八中戊  
午司馬試蔭補 健元陵直公辭曰男兒要當擢高科闢步亨衢安用屑屑小官爲乃  
下帷讀書遂捷丁卯科選入承文院拜承政院注書歷兵曹佐郎集賢殿副教理吏曹正  
郎直藝文館大明使陳鑑高閔奉詔來謁聖成均館試儒生作文公代術之天使見其文  
甚加嘆賞中丁丑重試拜判軍器監事嘗一日世祖命文臣製箋文公爲冠 御書批之  
曰一等特授僉知中樞府事遣宗宰就賀其第仍 賜酒樂俄遷工曹參議尋拜承政院  
同副承旨累轉爲右承旨超陞至都承旨 世祖辛酉都公扈駕凡措置稱旨 上褒之曰  
謹慎密無踰卿超授嘉靖大夫吏曹參判出爲全羅道觀察使本道古百濟遺墟其俗  
強狠好爭詔薄牒沓至常若不暇裁遣公剖決如流案無留牘入爲刑戶兩曹亞卿丙戌  
中拔英試特授資憲是時世祖詳定大典公仰奉聖筭所定居多陞拜刑曹判書 世祖  
賜酒樂令左右侍臣就其第而賀之 世祖嘗與二三近臣置酒內殿公適有服承招入  
侍飲而舍肉 世祖知之翌日 賜酒肉開素其紆寵眷如此未幾吏曹判書有闕朝廷難  
其人 世祖曰吾有一廉直臣卿等母慮尋以公爲判書加正憲 成宗三年以工曹判書  
赴京公能詩善寫華人嘆服求之者坌集 成宗右文念作人在得師儒擇宰相中最有文  
名者若干人令仕成均館公與焉諸生仰之如山斗及夫留守開城也士女皆手額望公  
曰何來之暮無何患風漸遞爲知中樞府事遷拜議政府左參贊疾彌留竟不起實 成  
宗十七年八月也 上哀悼甚輟朝二日贈有加太常贈謚文安君子曰稱也公爲人

寬和雅中休休有用人之量風流文雅冠一世其爲學貫穿經史施諸政事蔚有經濟大材其文章超卓時表尤精切筆法遒俊可愛世祖出內藏趙子仰書命公效之甚逼真世祖稱嘆美之一時宮殿門額寺刹碑文皆其手跡成宗晚知公之善書而公已病矣命取盛年所書而覽之曰眞天才也平生務持大體不爲苛細事不喜塵務每靜生一室不問家事庭除累石以爲山引流而池之聚各花異卉雜植於其旁相對怡然集平生契友詩文作小軸名曰假山詩卷置凡案以爲清玩江邊又構別墅乘興輒往岸巾曳杖逍遙遊雖身處富貴淡乎如林泉逸士然公所著詩文甚多炎于鬱攸殆盡僅得裒聚成一帙公嘗編古今異聞釐爲百卷名曰大平通載行于世嗚呼以公之度量才華而位不到台鉉壽不及期頤天可必乎許氏之考曰注簿末石大司憲應之子也公有三男一女皆貴顯於世貴達文安公之後進同知之同升也雖不文義可辭諸乃

#### 銘之曰

昌寧族姓 厥最惟成 由鼻及耳 奕世簪纓 憲憲文安 克振厥聲 嵩岳降神 圭璧淪精 其氣天和 其質水清 風流文雅 冠冕公卿 詩倒曹劉 筆比鍾王 被服錦繡  
黼黻文章 夙夜四朝 列聖寵光 優游身世 大平日月 林亭之勝 城南第一 假山春青 小池天碧 軒冕其身 湖山其臆 年六十餘 返眞而仙 坡州地面 有隴牛眼  
青烏子曰 吉無咎焉 凰棲凰隨 雙墓峙然 有石可磨 有文可鐫 于以治之 于千萬年

弘治十三年 庚申三月 日男世明等立石

◆ 번역문

유명조선국 정현대부 의정부 좌참찬 문안성공 신도비명병서

정현대부 의정부 좌참찬 겸 동지 경연사 지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흥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홍 귀달(洪貴達)지음.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 겸 동지 춘추관사 도총부 부총관 안 침(安 琢)은  
쓰고 아울러 전(篆)을 함.

공의 휘(諱)는 임(任)이요, 자(字)는 중경(重卿)이니 창녕현인(昌寧縣人)  
이다.

성화(成化) 갑진년(성종 15년:1484년)에 돌아가시니 향년 64세요, 이해 10월  
에 파주(坡州) 서면(西面) 오리곶(烏里串)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16년 뒤인 홍치(弘治) 기미년에 부인 허씨(許氏)가 졸하여 공의 묘에 부장  
하였다. 장례를 마치고 그 아들 동지중추(同知中樞) 세명(世明)이 나에게 서  
신을 보내 비문(碑文)을 지어줄 것을 청하였다.

선계(先系)는 고려(高麗)때에 비롯하여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는 대대로 거  
경(鉅卿)을 배출하였다. 황고(皇考:아버지, 皇은 大의 뜻) 휘 염조(念祖)는 해  
주목사(海州牧使) 안종약(安從約)의 따님을 취하여 공을 낳았는데 목사는 바  
로 문성공(文成公) 향(珦)의 5세손이다.

문성은 사문(斯文)에 공이 있어 공자묘정(孔子廟庭)에 배향되었다. 무릇 친  
가(親家)와 외가(外家)의 이와 같은 누대의 상경(祥慶)이 겹친 가운데서 정기  
를 받았으니 그 후손은 크게 번창하게 될 것은 지당한 이치이다.

공은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으며 7세되던 해에 스승에  
게 나아가 글을 배웠는데 벌써 능히 글의 뜻을 훤히 알았다. 같은 학사(學舍)  
에서 공부하던 한 아이가 효경(孝經)을 읽고 있었는데 공은 곁에서 뚝뚝히 듣  
고는 이를 마음에 새겨두었다 물러나서 외우는데 한 자도 틀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선공께서 크게 기특히 여겨 『이 아이는 후일에 틀림없이 크게 될 것이  
다.』 하고는 기뻐하시었다.

18세 되던 무오년(戊午年)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음직(蔭職)으로 건

원릉(健元陵:李太祖陵) 참봉에 보직되니 공이 이를 사양하고 말하기를 『남아가 마땅히 대과(大科)에 합격하여 높은 반열에서 활보하고 다닐 것이지, 어찌 째째하게 작은 벼슬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리오.』 하고는 드디어 회장을 내리고 글을 읽어 마침내 정묘년(丁卯年) 대과에 급제하였다. 이로써 승문원에 선입되었다가 승정원 주서를 배수하였고, 병조 좌랑과 집현전 부교리, 이조 정랑을 거쳐 예문관으로 옮겼다.

이때 명나라 사신 진 감(陳鑑)과 고 윤(高閔)이 조서(詔書)를 받들고 와 성균관에서 알성(謁聖)하고 유생들의 작문 솜씨를 시험하였는데 공은 한 유생의 것을 대작(代作)하여 주었다. 천사(天使:明使臣)는 그 글을 보고는 몹시 탄복하고 칭찬하였다.

정축년(丁丑年) 중시(重試)에 합격하니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를 배수하였다.

일찍이 어느 날 세조(世祖)께서 문신(文臣)들에게 전문(箋文)을 지으라 명하시었는데 공이 1등을 하니 어필(御筆)로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1등에게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특별히 제수하노라.』 하시고, 종재(宗宰:吏曹判書)를 집으로 보내서 하례토록 하였으며 또 주악(酒樂)도 내리시었다.

곧 공조 참의로 옮겨졌으며, 얼마 후에는 승정원 동부승지를 배수하였으며, 이어 몇 차례 승진을 거쳐 우승지로 올랐으며 드디어 도승지에까지 이르렀다.

세조가 서도(西都:平壤)에 행행할 때 공이 이를 호가하였는데 모든 조치에 하나의 실수도 없으니 상께서 칭찬하기를 『건설하고 치밀하기가 경을 당할 사람이 없도다.』 하시고는 특별히 품계를 올려 가정대부(嘉靖大夫)로 승진시키고, 이조참판을 배수하시었다.

외적으로 나가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라도가 옛날 백제(百濟)의 터전으로 풍속이 사납고 사람들이 쟁송(爭訟)을 좋아하여 소첩(訴牒)이 수 없이 쌓이니, 어떠한 관리들도 이에 대한 재결은 미처 할 수 없었기에 공을 보낸 것이었다. 공은 소첩을 분석하고 이를 판결하였는데 그 판결이 마치 물이 흐르는 듯 명쾌하게 하니 얼마 안되어 밀린 안전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돌아와 형조와 호조의 참판을 지냈고, 병술년에는 발영시(拔英試:重試)에 합격하니 특별히 자헌(資憲)의 품계를 제수하시었다. 이 때에 세조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상정하였는데, 공은 성지(聖旨)를 받들고 가장 많은 찬정(撰

定)을 하였다.

이로써 형조 판서로 승진하니 세조는 주약(酒樂)을 내리고 좌우 시신으로 하여금 그 집에 나아가 하례하도록 하였다.

세조가 일찍이 두, 세명의 근신(近臣)과 더불어 내전(內殿)에서 술자리를 벌렸는데 공은 마침 상(喪)중에 있었으나 부름을 받아 입시(入侍)하여 술은 조금 마셨으나 고기를 들지 아니하였다. 세조가 이를 알고는 이튿날에 주육을 하사 하시면서 개소(開素: 素를 중지함)를 명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총권(寵眷)을 입음이 이와 같았다.

오래지 않아 이조 판서의 자리가 비게 되니 조정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였는데, 세조가 이르기를 『내게 염직신(廉直臣) 한 사람이 있으니 경등은 염려말라.』 하고 바로 공으로 하여금 이조 판서로 삼고는 품계를 정현계(正憲階)에 올리었다.

성종(成宗) 3년에 공조 판서로서 연경(燕京)에 갔는데, 공은 시(詩)도 잘짓고 글씨도 잘쓰니 중국 사람들이 크게 탄복하였고, 공에게 글이나 글씨를 받으려는 자들이 수 없이 몰려들었다.

성종이 문치를 일으키면서 인재를 배양하려면 사유(師儒: 成均館의 司成, 大司成)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여겨 재상중에서 가장 문명(文名)이 뛰어난 사람 몇을 골라 성균관에 있도록 하였는데 공도 이에 참여하니 제생(諸生)들이 공을 태산복두처럼 우러러 보았다.

개성 유수로 나가니 사녀(士女)들이 모두 이마에 손을 얹고 공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왜 이리 데디 오시는가?』 하였다.

얼마 후에 풍증으로 지중추부사를 체직하고 의정부 좌참찬을 배수하였는데, 병이 낫지 않고 끝내 일어나지 못하게 되니 이때는 성종 17년 8월이었다. 상께서는 매우 슬퍼하여 2일간 철조(輶朝)하고 부증(賄贈)도 넉넉히 하였으며 태상시(太常寺)에서는 문안(文安)이라 시호를 내리니 식자들은 알맞는 시호라 칭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관화(寬和) 아중(雅中)하여 사람을 포용하는 아량이 있었고, 풍류와 아망(雅望)이 일세에 뛰어났으며 학문은 경사(經史)를 통달하였고 정사를 베풀에 있어서는 경제(經濟)의 뛰어난 재주가 우뚝하였다. 또 문장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으며, 특히 시(詩)와 표문(表文)에 더욱 정교하였고 필법

도 힘차고 날렵하였다.

세조가 내장(內藏)되어 있는 조자昂(趙子昂·元, 趙孟頫)의 글씨를 내주면서 공에게 이를 모사(模寫)하게 하였던 바 글씨가 거의 비슷하여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 세조께서는 이를 보고는 크게 감탄하고 칭찬하시었다. 일시의 궁정문의 액자나 사찰 또는 비문의 글씨는 모두 그의 솜씨였다. 성종도 늦게야 공이 글씨를 잘쓰는 것을 알았으나 그 때는 공이 이미 병이 든 뒤였다. 주위에 명(命)하여 한창 때에 쓴 글씨를 구하여 보고는 『참으로 천재다.』라고 칭찬해 마지 않았다.

평생에 대체(大體)를 지키기에 힘썼고 자질구레하거나 속된 일은 하려하지 않았으며, 매양 일실(一室)에 정좌하여 학문을 탐독하였고, 가정사에 대하여는 일체 묻는 일이 없었다.

마당가에는 돌을 쌓아 동산을 만들고 물을 끌어다가 못을 만들었으며 기화요초를 모아 그 곁에 섞어 심고 그것들을 완상하며 즐겼다. 평생에 마음 맞는 친구들의 시문을 모아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산시권(假山詩卷)』이라 이름붙이고 책상 위에 놓아 두고 때때로 완상하였다.

또 강변에 별장을 지어 놓고 흥이 나면 달려가 탈망(脫網:網巾을 쓰지 않은)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고 소요하며 놀았으니, 자신이 부귀의 상충에 처해 있으면서도 담담하기는 마치 산림(山林)의 일사(逸士)와 같았다.

공의 시문은 매우 많았으나 화재로 대부분을 잃고 나머지를 모아 겨우 한 권을 만들었다. 공은 일찍이 고금의 기문(奇聞)을 엮어 백권을 만들고 이를하여 「대평통재(大平通載)」라 하였는데 이것은 아직도 세상에 행하고 있다.

오호라! 공의 넓은 도량과 높은 재주로도 벼슬은 태현(台鉉:정승)에 미치지 못하였고, 수(壽)는 기이(期頤:百歲)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부인 허씨의 아버지는 주부(注簿) 말석(末石)이니, 대사헌 응(應)의 아들이다. 공은 3남 1녀를 두어 모두 귀하게 현달하였다.

나는 공의 아들 동지증추부사와 동승(同升:同榜)이니 비록 글은 못하지만 의리상 비문을 지어달라는데 사양하겠는가?

명(銘)하기를

창녕 성씨(成氏)는 훌륭한 성씨(姓氏)로, 시조에서 8대까지 대대로 대관을

지냈도다. 고명한 문안공은 명성을 잘도 떨쳤으니, 송악(崧岳)의 정기와 규벽(圭壁)의 정체였도다. 기상은 하늘처럼 온화하고 천성은 물처럼 맑았으며 풍류와 유아(儒雅)는 공경(公卿)중에 으뜸이었도다. 시(詩)는 조유(曹劉:曹植과 劉楨)를 압도하고 글씨는 종왕(鍾王:鍾繇와 王羲之)과 비등하였으며, 벼슬은 높고 풍채는 현란하였도다. 4조(朝)를 섬겨 오면서 열성의 총애를 받았으니 우유(優游)한 신세(身世)요 태평한 일월(歲月)이었도다.

임정(林亭)의 빼어난 경치는 성남(城南)에서 제일이었으니, 가산(假山:人造東山)에 봄이 무르고 연못에는 하늘이 맑았도다. 몸에는 지위가 높고 마음은 호산(湖山)처럼 넓었는데 나이 60여세에 선화(仙化)하고 말았도다.

파주(坡州)의 서면에 우면(牛眠)같은 무덤 있는데, 청오자(青烏子:地師)는 말하였도다. 『길하고 살은 없다.』고 봉(鳳:雄曰鳳)이 깃들이면 황(凰:雌曰凰)이 따르듯 두 개 무덤이 높다랐도다. 둘은 다듬어 세울만 하고 글은 새겨둘만 하니, 이에 다듬어 천만년토록 길이 보존하소서.

홍치(弘治) 13년 경신(庚申) 3월 일 아들 세명(世明)등이 비석을 세우다.